

“봄 배구 하고 싶다...데이터 배구 접목해 팀 변화시킬 것”

광주 시페퍼스 아헨 김 신임 감독

광주 시페퍼스 아헨 김(37) 신임 감독은 14일 “봄배구를 하고 싶다. 팀을 변화시키는 감독이 되려 한다”고 밝혔다.

아헨 김 감독은 14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공식 인터뷰를 하고 “페퍼스를 위해, 광주 홈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독 선임 후 처음으로 홈구장을 방문, 관중석에서 페퍼스와 한국도로공사전을 지켜봤다.

그는 “빠른 플레이를 추구하는 팀으로 컬러를 변화시키겠다”면서 “스피드 배구를 선수들이 흡수하도록 비시즌에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속공을 쓰면 전반적으로 플레이가 빨라지는 부문도 있지만, 자신은 팀 전체적으로 스피디한 배구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배구를 페퍼스에 접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데이터를 국가 대표부터 하위 리그까지 활용하고 있다”면서 “어떤 선수가 스타팅으로 뛴지, 어떤 수비 대형을 펼치고 공격해야 하는지 등을 데이터를 통해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구체

홈구장 방문 경기 지켜봐 페퍼스 수비 강점 있지만 경기 끝내줄 플레이어 없어 스타팅 멤버 외 백업선수 필요 광주 홈팬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하고 적용할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을지 스타프들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헨 김 감독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지난 5일 현대전을 지켜봤다. 이날도 인터뷰를 서둘러 마치고 페퍼스 경기를 보기 위해 페퍼스 관중석으로 올라갔다. 그는 18일 IBK기업은행전도 지켜볼 계획이다.

그는 “페퍼스의 강점은 수비이며 리베로 오지영이 리시브 라인을 챙기고 수비를 잘 이끌고 있다”면서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 이한비의 경우 리시브가 안정적이고 공격도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기를 끝내줄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는 게

단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포인트를 내는 선수, 어느 포지션에서든 득점하는 선수가 필요하다”면서 “아웃사이드 히터(라이트), 아웃사이드 히터, 미들 블로커(센터)가 필요하고 스타팅 멤버 6명뿐 아니라 백업선수도 있어야 한다”며 선수 보강에 대한 바람도 언급했다.

“봄배구를 하고 싶다”는 그는 “선수, 스타프들과 지난 경기를 보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팀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아헨 김 감독은 2023-2024시즌부터 페퍼스 지휘봉을 잡는다. 한국계 미국인인 아헨 김 감독은 2018년부터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디비전1 소속 아이비 리그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 배구팀 감독을 맡았다. 2021년 ‘아이비리그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됐다.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고교와 대학 시절 각각 아웃사이드 히터, 리베로로 활동한 아헨 김 감독은 2008년 지역대학 프로그램 캠프 코치를 시작으로 지도자 경력을 쌓았다.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5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체육회 제1차 이사회에서 민선 2기 새로운 집행부가 광주체육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이사진 종목별 안배로 ‘탕평·화합’

최갑렬 부회장 선임 눈길

김영삼 사무처장 등 집행부 구성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가 민선 2기 체육회를 꾸려갈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시체육회는 15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회장 등 신임 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목단체 임원인준 승인 보고와 각종 규정 개정, 사무처장 임명 등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 집행부는 부회장 9명, 이사 33명으로 구성

됐다. 회장을 제외한 전체 집행부 42명 가운데 3~4명을 제외하고 모두 새얼굴로 교체됐다.

신임 집행부에서는 전 회장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양상으로 꺾였던 최갑렬 전 광상구체육회장이 부회장에 선임돼 눈길을 끌었다.

체육회장 선거에서 전 회장의 반대편에 섰던 일부 인사들도 이사진에 포함됐다. 오형석 광주시검도회 부회장은 광주시검도회에서 처음으로 시체육회 부회장을 맡게 됐다.

이는 탕평, 화합 인사를 바탕으로 체육회를 이끌겠다는 전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진도 생활·전문체육간, 종목별 안배가 이뤄

진됐다. 전문성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재용 광주육상연맹 부회장, 김성은 전 광주여대 양궁팀 감독, 최수용 금호고 축구감독 등이 대표적이다.

신임 사무처장에는 김영삼 광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 이사가 임명됐다. 김 사무처장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 국민소통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농부가 봄을 맞아 씨앗을 뿌려 풍성한 결실을 거두듯 민선 2기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영오픈 개막...안세영-야마구치 재대결 주목

김소영·공희용, 32강전 첫 승전보

배드민턴 여자복식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이 2023 전영오픈에서 첫 승전보를 알렸다.

세계랭킹 6위 김소영-공희용 조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대회 첫날 여자복식 32강전에서 세계랭킹 21위인 린다 이블라-이사벨 로하우(독일) 조를 2-0(21-11, 21-3)으로 눌렀다.

1세트를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이긴 김소영-공희용 조는 2세트에선 15연속 득점하며 경기를 29분 만에 끝냈다.

16강 상대는 대만의 리자신-등준선 조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대회인 전영오픈은 1899년에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배드민턴대회다.

한국은 1985년부터 2000년까지 한 차례만 제외하고 매년 금메달을 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입지가 줄어들었다.

가장 최근의 금메달 성적은 2017년 여자복식 장예나-이소희 조다.

지난해 대회에선 여자단식 안세영이 결승전에서 ‘속적’ 야마구치 이케네(일본)에게 패해 준우승했

고, 여자복식 정나은-김혜정 조가 최종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올해는 안세영을 필두로 한 13명의 대표팀이 6년 만의 종목 우승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특히 안세영은 올해 들어 결승전에서만 세 번 맞붙어 두 번 패한 야마구치에게 지난해 패배까지 한 꺼번에 설욕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만약 안세영이 우승한다면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의 전영오픈 여자단식 금메달이다.

남자복식에는 서승재-강민혁 조, 최술규-김원호 조가 출전한다. 여자복식은 김소영-공희용 조, 김혜정-정나은 조, 이소희-백하나 조가 나왔다.

혼합복식엔 서승재-채유정 조, 김원호-정나은 조가 나서는 가운데 여자단식에선 안세영과 김기은이 경쟁한다. /연합뉴스



아헨 김 광주 시페퍼스 감독이 14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공식 인터뷰를 마친 뒤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고교야구 선동열 라이벌 김태업 영면...이순철이 기억하는 김태업

“중학생 최초로 무등경기장 홈런 투타 모두 능한 놀라운 선수였다”

오랜 투병에 뒤늦게 타계 알려져

1978~1980년 고교야구 최고의 에이스로 이름을 날린 김태업(金太業) 전 강진 북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영면했다.

지병으로 투병해왔던 고인이 지난달 13일 조산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지난 14일 유족이 전했다. 향년 60세. 고인은 수년 동안 투병하느라 외무활동이 줄면서 뒤늦게 영결소식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62년 2월19일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강진 북국민학교에서 야구를 시작했고, 5학년 때 광주 서림국민학교로 전학했다. 이어 전남중·광주상고(1학년 때는 전남고), 연세대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이순철 SBS해설위원과는 초·중·고·대에서 함께 야구를 했다.

고인은 고등학교 내내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면서 이름을 날렸다. 광주일고의 선동열·차동철과 함께 투수 3인방으로 꼽혔던 그는 키 185cm의 긴장한 체격을 바탕으로 투·타에서 모두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다.

고인이 3학년이었던 1980년 5월 1일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는 광주상고와 광주일고의 눈길 끄는 맞대결이 펼쳐졌다.

에선에서는 광주상고가 광주일고를 꺾었지만 결승에서 2-8패를 기록했다. 광주일고가 차동철과 선동열을 번갈아 가며 마운드에 올렸지만, 김태업은 앞선 세 경기에서 완투를 하면서 결승전에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고인은 같은 해 8월 봉황기 대회에서는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투·타에서 모두 특급 실력을 보여줬다.

1985년 선동열, 이순철과 함께 해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의 프로 생활을 짧았다. 입단 첫해 35경기에 나온 게 전부였다.

1986년 입대를 계기로 야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한 그는 2012년 모교인 강진 북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부임해 2013년 도지사기 학생야구대회 준우승, 2014년 도지사기 대회 우승을 이끌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선수 김태업’을 지켜봤던



연세대 시절의 김태업. /연합뉴스

이순철 위원은 “놀라운 선수였다”고 기억했다. 이 위원은 “중학교 3학년 선수가 무등경기장에서 홈런을 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데 중학생 최초로 홈런을 기록했었다. 투수 포지션에서도 선동열 보다 훨씬 앞서나갔으며 ‘고등 학생으로서 투·타에서 완벽했다. 전남고를 다닐 때인데 당시 신일고 3학년에 김정수, 김남수, 양승호, 최홍석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었다. 우승 후보였던 신일고를 상대로 1학년 김태업이 2-1 승리를 이끌었었다. 굉장한 유망주였다”고 그를 회상했다.

뜨거운 인기도 기억한다. 이 위원은 “여학생한테도 인기가 정말 많았다. 김태업을 보러 온 여학생 팬들 때문에 숙소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학교에 팬터도 엄청 왔다. 내가 프로에 있으면서 받은 편지보다 더 많은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며 “타이거즈 시절 김용용 감독한테도 총애를 받았다. 다른 동기들이 서운할 정도로 정말 총애를 했다. 그래서 나는 ‘키가 적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자극제가 됐다. 그렇게 실력과 인기를 갖췄던 선수가 더 활약하지 못하고 일찍 떠나서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선수 김태업’을 지켜봤던

이 위원은 “여학생한테도 인기가 정말 많았다. 김태업을 보러 온 여학생 팬들 때문에 숙소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학교에 팬터도 엄청 왔다. 내가 프로에 있으면서 받은 편지보다 더 많은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며 “타이거즈 시절 김용용 감독한테도 총애를 받았다. 다른 동기들이 서운할 정도로 정말 총애를 했다. 그래서 나는 ‘키가 적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자극제가 됐다. 그렇게 실력과 인기를 갖췄던 선수가 더 활약하지 못하고 일찍 떠나서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선수 김태업’을 지켜봤던

이 위원은 “여학생한테도 인기가 정말 많았다. 김태업을 보러 온 여학생 팬들 때문에 숙소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학교에 팬터도 엄청 왔다. 내가 프로에 있으면서 받은 편지보다 더 많은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며 “타이거즈 시절 김용용 감독한테도 총애를 받았다. 다른 동기들이 서운할 정도로 정말 총애를 했다. 그래서 나는 ‘키가 적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자극제가 됐다. 그렇게 실력과 인기를 갖췄던 선수가 더 활약하지 못하고 일찍 떠나서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선수 김태업’을 지켜봤던

이 위원은 “여학생한테도 인기가 정말 많았다. 김태업을 보러 온 여학생 팬들 때문에 숙소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학교에 팬터도 엄청 왔다. 내가 프로에 있으면서 받은 편지보다 더 많은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며 “타이거즈 시절 김용용 감독한테도 총애를 받았다. 다른 동기들이 서운할 정도로 정말 총애를 했다. 그래서 나는 ‘키가 적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자극제가 됐다. 그렇게 실력과 인기를 갖췄던 선수가 더 활약하지 못하고 일찍 떠나서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선수 김태업’을 지켜봤던

이 위원은 “여학생한테도 인기가 정말 많았다. 김태업을 보러 온 여학생 팬들 때문에 숙소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학교에 팬터도 엄청 왔다. 내가 프로에 있으면서 받은 편지보다 더 많은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며 “타이거즈 시절 김용용 감독한테도 총애를 받았다. 다른 동기들이 서운할 정도로 정말 총애를 했다. 그래서 나는 ‘키가 적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자극제가 됐다. 그렇게 실력과 인기를 갖췄던 선수가 더 활약하지 못하고 일찍 떠나서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즈메의 문단속
- 소울메이트, 플레인
- 사침 신들의 분노
- 스즈메의 문단속
- 소울메이트
- 사침 신들의 분노, 이니세린의 밴시
- 더 퍼스트 슬램덩크
- 씨네키움 대외비, 서치 2, 엔트맨과 와스프: 퀴벡매니아
- 씨네키움 플레인, 멍둥이, 카운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BALLET CURATION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설공연서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